

지역 소상공인 재기 지원 ‘새출발기금’ 역할 ‘톡톡’

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에 ‘새 희망’
채무 80% 감면, 나머지 120개월 상환
광주 527명, 412억원 규모 도움 받아
내년 기금 운영예산 반토막에 우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영업을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 모두 떠안고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새출발기금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계도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기금 운용 1년여 만에 광주에서만 500여명의 자영업자들이 원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내

년 관련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팬데믹 시대의 자영업자’였다. 지난 2020년 초 오랜 기간 준비해 왔던 카페를 창업하면서 곧바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지만, A씨는 당시에만 해도 그 긴 터널이 3년여간이나 이어질 줄을 몰랐다고 한다.

A씨는 “영산포 쪽에 카페를 열었는데 평소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밤 9시에서 10시 1시간 차이라도 일찍 문을 닫아야 했던 것이 가장 타격이 컸다”며 “특히 인근 술집이나 음식점들도 모두 영업제한에 걸리면서 동네 자체가 한산해져 버리니 아무리 행사를 하고 손님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해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전 6시에 출근해서 남들보다 일찍 카페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커피 맛을 차별

화하게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지만, 코로나의 벽을 넘기는 힘들었다. 영산포에 유채꽃이 피는 5월, 평소라면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던 시기에도 손님들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매일 임대료만 500만원에 인건비, 전기 등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오히려 적자를 보는 달이 늘어갔고 A씨는 결국 3년 만인 올해 초 폐업을 결정했다.

A씨는 “처음에는 지원금 도움도 받고 안되니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임대료도 못 낼 처지가 되자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제하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해도 대출금이 역 단위로 넘어가자 폐업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남은 채무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A씨에게 새출발기금은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희망이었다. 우연히 알게 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약정자로 선정되면서 A씨는 80%의 원금 감면, 나머

지 20%의 채무는 120개월에 나눠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A씨는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이 오고 믿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었다”며 “혼자서라면 정말 헤쳐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나라에서 마련한 제도가 나를 살게 해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이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해 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매입형 약정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광주에서만 527명에 달한다. 이들의 채무액은 412억원으로 원금감면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여기에 금리와 상환기간이 조정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중개형 약정자 수까지 포함하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하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캠코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올

해 하반기부터 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약정 체결 비율도 82%에서 94%로 뛰었지만, 최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새출발기금 예산은 당초 7600억원에서 33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늘어나고 있는 신청자 수와 내년 확대되는 새출발기금 대상 등과는 맞지 않는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고 부채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새출발기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책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면서 “이제야 기금에 대해 많이 알려 알려지기 시작해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대로 예산은 급감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광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담양 핫플 카페 디저트 즐겨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담양 핫플 레이스 카페 ‘어텐션플리즈’ 팝업 매장을 28일까지 진행한다.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팝업에서는 겨울철 따뜻한 커피, 차와 곁들이면 좋은 스콘과 주로 중앙아시아에서 우유의 지방을 모아 굳혀 크림처럼 만들어 꿀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이 좋아 천상의 맛이라고 불리는 ‘카이막 토스트 및 바게트’ 등 다양한 겨울철 디저트를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소진공,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벤트

내년 1월3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년 1월31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전용앱에 등록해 사용하는 신개념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재 10% 특별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 동안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누적 10만원 이상 결제 시 마케팅 정보 이용 동의자에 한해 자동으로 응모된다.

2024년을 기념해 이벤트 당첨자 2024명에게는 △1등 200만원(1명) △2등 100만원(3명) △3등 50만원(20명) △4등 5만원(2000명) 등 총 1억1500만원 규

모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2000여곳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에 카드단말기 설치와 온누리상품권 표지판이 부착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개인·기업에 특별할인판매(10%)하고 있다. 가맹점은 카드형 상품권 전용 앱상의 ‘가맹점 찾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올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10%할인된 가격으로 장도 보고 이벤트 당첨의 행운도 누리는 2024년 갑진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

동강대 BI센터, 7년째 입주기업 ‘투자 IR’ 지원

지역 대학·유관기관 BI와 협력
엔젤·벤처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센터가 광주·전남 창업 기업들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힘을 모았다.

동강대 BI센터는 최근 서울 여의도 IFC Seoul 3층 Brookfield Hall에서 ‘2023년 BI 보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제7회 입주기업 투자 IR(Investor Relations) Day’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동강대는 지난 2017년부터 BI센터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수

도관에서 IR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년 전부터 여러 BI(광주대, 남부대, 동신대, 순천대)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창업초기 기업들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이날 동강대 BI센터 입주기업인 ㈜세르보테크, ㈜로열프레시, 쿠만 등을 비롯해 8개 기업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엔젤투자자 및 벤처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펼쳤다. 참여 기업 중 ㈜세르보테크와 ㈜로열프레시가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고 ㈜에프지케이(남부대 입주기업)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IR 발표 후 투자자와 네트워킹 시간에

는 PT 피드백 및 투자 동향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앞으로 동강대 BI센터는 IR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자금, 입주 여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투자유치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박경우 동강대 BI센터장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무척 중요하다”며 “수도권에서 7년째 IR행사를 열며 매년 투자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제네시스 ‘상품성 보장’ G80 부분변경 모델 출시

내외장 디자인 고급화
‘스포츠 패키지’ 운영

제네시스 브랜드가 럭셔리 대형 세단 G80의 부분변경 모델(사진)을 26일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G80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총 40만대 이상 판매되며 제네시스 브랜드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에 기여한 대표 모델이다. 특히 2020년 3월 출시된 3세대 G80은 디자인, 주행성능, 고객 서비스 등 세계적으로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이번 부분변경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모델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G80 부분변경 모델의 전면부는 크레스트 그릴을 이중 메시 구조로 구현해 정교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더했으며,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헤드램프에 MLA(Micro Lens Array) 기술을 적용, 첨단 기술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다.

측면부는는 5도블 스포크 20인치 휠을 새롭게 적용해 차체 라인과의 조화를 이끌어 냈으며 후면부에는 제네시스 크레스트 그릴의 디자인에서 착안한 V 형상의 크롬 트림과 히든 머플러를 적용했다.

실내에서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진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세련된 최첨단 차량의 인상을 제공한다. 사용자 취향에 맞게 2분할 또는 3분할 화면을 선택해 내비게이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양한 콘텐츠를 띄울 수 있으며 터치 타입 공조 조작계와 크리스탈 디자인의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 및 통합 컨트롤러(CCP)를 적용해 조작감을 향상시킴은 물론, 시각적 고급감을 극대화했다.

또 1, 2열의 온도, 모드, 풍량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3존+(플러스) 공조와 디지털키 2,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콘솔 암레스트 수납함 자외선 살균 기능, 콘솔 암레스트 열선 등을 탑재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제네시스는 G80의 주행 진동을 개선하고 실내 소음 유입을 줄여 최고 수준의 승차감과 정숙성도 확보했다.

제네시스는 G80을 2.5 터보 가솔린과

3.5 터보 가솔린 등 2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한다. 2.5 터보 가솔린은 최고출력 304마력(ps), 최대토크 43.0kgf·m, 복합연비 10.6km/ℓ이며, 3.5 터보 가솔린은 최고출력 380마력(ps), 최대토크 54.0kgf·m, 복합연비 9.0km/ℓ 등 성능을 갖췄다.

제네시스는 G80에 역동성을 더해주는 내·외장 요소와 주행 성능 향상을 위한 전용 사양 탑재로 스포티함을 극대화한 ‘G80 스포츠 패키지’도 운영한다.

한편 제네시스는 구매 단계에서 차량 선택의 편의성을 높여줄 ‘추천 차량’을 7종 운영한다. 추천 차량은 제네시스가 고객들의 다양한 선호를 고려해 읍선 단위까지 엄선한 사양 조합으로, 고객은 원하는 내외장 색상과 가니쉬만 선택하면 간편하게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

광지혜 기자